

취약계층 주거 복지 향상 도모

진안군, 저소득층 27가구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주거환경 개선 나서

진안군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복권 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에 리모델링과 편의시설,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에너지 절약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붕 및 화장실(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당초 26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종적으로 27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자들은 △단열 보강 △노후



진안군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후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결로·곰팡이 개선 등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사업을 확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북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1위'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장수군이 성수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전북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해 도내 14개 시군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1명과 산불 담당 공무원 1명으로 지상 진화팀을 구성해 경연을 벌였다. 경연은 산불 발생 현장에서의 산불 진화차 진입과 급수 제한 상황을 대비해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및 간이수조 등을 설치하고 답수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은 산불기계화 진화역량과 초대응 능력 등 우수 항목에서 최고점



장수군이 성수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전북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을 받으며 14개 시군 중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장수군에서 평소 산불기계화 장비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장비조작 인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초기 진화 중심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장수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에 맞춰 산불종합상황실(2명)을 상시 가동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34명, 읍·면 감시원 43명을 배치해 주요 등산로 계도, 입산객 단속, 임산물 채취 행위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사업 평가회 가져

무주군은 25일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2025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황, 농약사용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예찰 사업 추진 농가를 비롯해 무주과수영농조합, 관

심 농가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 장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무주군의 기상 변화와 개화기 저온, 가을장마 등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방제 기술을 교육했다. 또한 무주 사과 병해충 밴드(Band) 운영 성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황인동 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해 주4.5일제 적극 검토"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동 위원(제1선거구)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제도를 실시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주4.5일 근무제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위원(제1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 9개월간 무주군을 떠난 53명의 직원 중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43명, 81%에 달해 무주군의 조직역량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채용 관련 예산이 많이 들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 근무여건이 힘들어진다. 조직의 인재확보·육성 및 조직문화 적응 측면에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위원(제1선거구)은 이러한 측면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잔류와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미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 등으로 신분처분을 하기보다 직무교육 이수, 봉사활동 수행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대체처분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주4.5일제와 재택근무제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 사기진작은 행정 효율성과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과제"라며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취지에 따라 무주군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은영 위원장, "대형 관광시설 사업 지연으로 군 재정부담 상당"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무주군의 대형 관광시설 사업의 공정률이 낮아 재정 부담이 상당하며 반복 지적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문화 조성사업, 태권브이랜드, 안성 칠연지구,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태권마를 조성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어 "여러 관광시설 사업이 동시에 투입되고 있고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이라 군 재정의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관광시설은 완공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 이후의 관리계획도 중요하다. 운영주체, 유지관리 인력 확보, 콘텐츠 운영계획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장기적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주군 대형 시설물의 준공 지연 원인이 인허가 문제인지 설계변경인지, 내부 행정절차 때문인지 명확히 따져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시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사업기확단계에서 지연주진, 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은 부족하다"며 주민참여형 사업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질의를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민규 진안군의회 대표발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김민규 의원(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하여 진안군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될, 진안군 안전보안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지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 반디별천문과학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무주군 설천면 반디랜드 내 반디별천문과학관이 26일과 27일 양일간 우주항공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과학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우주항공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천문과학관에서 진행되는 계절 별자리 강의와 천체 관측(토성) 행사에 함께하게 된다. 박재훈 천문대장은 "누리호 4차 발사는 과학적·산업적 성과를 동시에 겨냥한 중요 사업이며, 무엇보다 민간 주도로 한국의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며 "반디별천문과학관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는 시간, 우리나라 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과학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2백 명에게는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인 키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준은 세대·층별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이다. 장수소방서는 "초기 진압과 화재 감지의 골든타임 확보는 무엇보다도 주택용 소방시설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확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홈페이지·SNS를 활용한 적극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